

02 세계화의 그늘과 정체성

The other side of the globalization

글. 이경창 Lee, Kyoungchang | 건축비평가

세계화의 그늘과 국수주의

지난 5월 제주 국제공항에 예멘인들이 대거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1만여 명의 사상자, 27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한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제주로 왔다. 이들이 몰리면서 난민수용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는데, 71만 명이라는 사상 최대의 인원이 참여하여 최근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답변에 나서기도 했다. 난민수용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문화 마찰, 자국민의 안전 우려, 경제문제 등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낯선 타자에게서 느끼는 막연한 불안이다. 외적 대상이 있는 공포와 달리 불안은 자기 내부에서 비롯된 것인데(하이데거에 따르면, 불안의 대상이 있다면, 그건 현존재 자신이다.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세상에 던져졌다가 어디론가 떠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이 불안의 근원이다.), 이를 바깥의 타자에게로 이전하는 셈이다. 달리 말하면, 문화 마찰, 치안, 경제문제는 한국 내부의 문제임에도, 마치 난민 탓인 양 전이되고 오인된다. 이런 불안은 곧바로 혐오의 시선, 차별의 시선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또한, 한국은 바야흐로 국제화 사회에 본격 진입했다는 점에서 이런 국수주의적 흐름은 시대착오적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규모는 어느덧 200만 명 수준으로 늘었다. 다문화가정은 2010년 인구조사자료에 따르면 이미 38만여 가구에 달한다. 지금은 두 배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는 곧 3만 명을 넘어선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차이나타운이나 외국인 거리 등 이국 문화를 상품화하려는 시도가 오래전부터 진행중이다. 더 크게 보면, 다문화가정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다문화주의가 널리 장려된다. 일견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장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정착을 돕는다는 이유로 타문화의 현존에 조건을 붙이거나, 동화를 은연중 강요하기도 하면서 진정한 다양성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국성을 고민하고, 민족의 고유성을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 도리어 이방인들에게는 억지로 동화되어야 할 것으로 차이를 억압하게 되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까? 물론, 지난날 전통에 대한 고취나 발굴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외래의 강력한 식민적 힘에 맞서는 지지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바야흐로 세계화 시대를 맞아 경제발전예 따른 이민의 유입과 한류의 수출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수주의와 문화의 자긍심 고취를 넘어, 여러 문화들 간의 차이와 생성을 고민할 시점은 아닐까.

사대주의와 유행 추종

한편으로는, 관 주도도 신한옥이라는 복고적 움직임이 생겨났다. 관에서 주도하는 일들이 대개 그렇지만, 미리 계획된 목표와 틀 내에서, 전통건축계에 속한 사람들만 참여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건축사의 전통에 대한 해석과 창작성은 위축되고, 문화의 생성적 힘은 퇴행하게 되며, 과거 건축에 대한 복고적 재현이 주가 된다고 볼 때, 현대 생활과 역사적 경험이 담긴 삶의 새로운 모색이 아니라 골동품 애호적 복고취향의 향수만 자극할 우려도 크다.

다른 한편으로, 외래의 사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유행으로 받아들여 피상적으로 수용하는 현상은 한국 건축에서 오래된 일이자, 여전히 만연한 현상이다. DDP같은 국제지명공모전에서 한국 건축사는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았다는 논란도 있었다. 다수의 공모전에서 외국의 유명 건축사의 작품을 추종 또는 참조하거나 심지어 도용을 의심케 하는 사례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범람하는 이미지와 정보가 만들어내는 역효과 탓이 크다.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세계의 건축 흐름을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깊이 있는 사유를 통해서보다는 이미지를 통해 단편적으로 수용되기 때문이다.

철학자 이정우는 『개념-뿌리들』의 서문에서, 한국 사회가 1990년대를 거치면서 두드러진 담론적·문화적 현상을 “이미지의 범람과 개념의 연성화”로 꼽은 바 있다. 이정우에 따르면, 강렬하고 즉각적인 이미지는 우리의 감성을 직접 자극해 쾌감을 주지만, 차분히 사유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우리를 사유하게 하는 힘은 개념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설계구상단계부터 이미지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개념이 들어설 틈이 없다. 본질적인 것을 찾아 깊이 생각하며 매달리는 순수한 열정 대신, 당장 유행하는 이미지만을 좇아 헤맬 뿐이다. 이들의 입장에서 정체성 논란이 사라진 이유는 단지 유행이 지났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실을 살피고 사유할 힘이 없다면, 더 큰 힘을 가진 자를

따르는 사대주의에서 벗어날 도리는 없다. 이런 점에서 국수주의와 사대주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현실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바라보고 고민할 사유의 힘이 없기 때문이다. 국수주의는 현실을 외면하며 오래된 과거의 영광에 기대는 것이고, 사대주의는 현실을 주도적으로 고민할 힘이 없어 맹목적으로 외래의 힘에 기대는 태도다. 외래의 좋은 사조는 문제의 해답이나 출구가 아니라 입구일 뿐이다. 과거의 좋은 선례 역시 현실의 문제를 반추할 뿐 곧바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전통논쟁에서 한국성 담론으로

전통 계승 논쟁은 196, 70년대 형태를 중심으로 하는 흐름과 80년대 이후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흐름을 대표하는 건축은 김종업의 <프랑스대사관>과 이희태의 <순교복자성당>을 꼽을 수 있고, 후자의 흐름을 대표하는 건축은 김수근의 <공간사옥>을 들 수 있다. 전자의 흐름은 최근 김효만에 의해 이어지고 있으나 외면받아 온 것이 사실이고, 후자의 흐름은 승효상, 민현식, 김인철, 우경국 등 이른바 4.3 건축가들의 작품을 통해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현되었다. 이들은 서구의 과학정신이 이룩한 물질의 풍요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 전통건축에서 유추한, ‘비움’이나 ‘없음’, ‘빈자의 미학’을 찾아 나섰다. 주로 현대 모더니즘 건축을 수용하되, 한국 전통의 정신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었다. 서구의 기술문명에 대한 대안을 전통적 사고에서 찾으려 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서양은 물질문명, 동양은 정신문명이라는 식의 단순 이분법에 갇혀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형태와 공간의 이분법을 넘어서고 있는 김효만의 최근 작품은 주목할 만 하다.

‘한국성’ 논의는 손쉽게 전통논쟁의 뒤를 이어받았다. 한국성에 대한 모색은 김성우의 「동서양의 세계관과 건축관」(『건축과환경』, 0001~0101)과 임석재의 『우리 옛 건축과 서양 건축의 만남』(대원사, 1999년), 최근 이상현의 『한국 건축의 정체성』(미메시스, 2017년)에 이르기까지 주로 동, 서양 미학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건축이라는 학제 자체가 서양의 산물인 만큼, 한국 또는 동양에서는 유사한 학문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탓에 이론화의 근본적 어려움이 있다. 서양의 현대적 이론체계에 비추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한국(또는 동양)의 이론을 구성해 내야하며, 자칫 오리엔탈리즘의 덫에 걸려드는 위험도 피해야 한다. 게다가, 비교연구는 쉬운 이해를 도모하게 하지만, 도식적으로 흘러 단순화될 수 있다. 아직까진 비교연구가 나열적인 사례 비교에 머물러 개념화로부터 진척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그리고 전통건축을 전통적인 동양사상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현대의 소통 가능한 언어로 번안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역시 완전히 현대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새롭게 구성해내든, 현대의 언어로 번안을 해내든 모두 지적 모험과 창조적 상상력이 필요해 보인다. 중국미학이나 한국미학의 성과와 함께 건축사의 창조적 개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통에 대한 해석은 언제나 잠정적이며 미완의 해석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전통 해석 속에 있는 번역불가능성, 해석불가능성이라는 구성적 결여야말로 새로운 해석과 창조가 가능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통이자 지역적 특성인 한국성은 고유한 소재이자 독창적 작품 세계를 통해 늘 새롭게 개척되어야 할 보고와도 같다. 그 길에 정해진 방식이란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그 길이 쉽지 않았다면 최소한 우리에게 앞으로의 오류를 검증해줄 역사적 경험이 쌓였다.

한국성 탐구는 여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함정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성 모색의 이면에는 한국식 근대성 또는 대안적 근대성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런 생각은 근대성의 근본적 의미가 전 지구적 자본주의 자체란 것을 간과한다. 마치 전 지구적 자본주의화가 문화의 다양성을 억누르기만 한다고 단순화하는 것처럼 말이다. 근대 포디즘 생산체제 아래서는 다원주의에 대한 요구가 대안으로 보였지만, 다품종소량생산 체계를 의미하는 포스트포디즘 시대에선 다원주의야말로 개별시장을 위한 맞춤 생산방식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속한다. 우리가 자본주의 바깥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대안적 모더니티 역시 불가능하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한국성에 대한 모색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극복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큰 함정은 한국성이라는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로써 망각되는 것은 문화란 동일하다기보다는 애초부터 혼종적이며 이질적이라는 사실과 혼종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가 생성된다는 사실이다.

비판적 지역주의와 탈식민주의의 교훈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이지도 정적인 것도 아니다. 반대로, 정체성은 복수적이며 항상 변하고, 심지어 다중적이기까지 하다. 라캉이 거울 단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듯이, 인간의 자아가 형성되는 것은 거울상을 통해 인지된 타자의 이미지를 통해서이다. 아기는 타자의 이미지에 동일시되면서도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데, 거울상에 비친 자신의 온전한 모습과 아직 미숙한 자기 신체 사이에서 어떤 불일치와 결여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런 소외의 결과, 라캉이 '이상적 자아'라고 부른 타자의 이미지에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것에 사로잡힌다. 문제는, 이런 갑옷과도 같은 견고한 자아의 틀을 깨고 나와야만 언어와 문화의 세계(상징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다. 게다가, 상징계로 진입하고 난 후에도 주체는 여전히 내부에 결여를 간직한 불안정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한국성 논의나 정체성 모색은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케네스 프램턴이 주창한 비판적 지역주의와 탈식민주의 이론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 1980년대 초 케네스 프램턴이 주창한 ‘비판적 지역주의’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미치고 있을 만큼 큰 영향을 미쳤다. 프램턴은 후기자본주의에 영합한 모더니즘 건축과 과거를 답습한 지역주의 건축 모두를 비판하며 장소성, 텍토닉, 시각적 이미지를 넘어 촉각적인 것을 추구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현대의 기술과 재료를 수용하되, 복고적인 것으로의 퇴행을 경고한다. 이처럼, 현대 건축 언어와 기술적 성과를 수용하되,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비판적 지역주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비판적 지역주의가 주류의 흐름에서 벗어난 주변적 실천에 대한 모색 속에 나왔다는 것이다. 주류를 추종하거나 과거의 권위에 기대는 것과는 무관하다. 주류의 흐름을 의문시하고 이에 대항하는 힘이야말로 문화가 존속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한국성 논의도 형태와 추상적 개념 또는 공간을 넘어 텍토닉과 장소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탈식민주의 이론의 대표적 이론가인 호미 바바에 따르면, 어떤 문화도 다른 문화의 영향 바깥에 놓여 있는 순수한 존재일 수 없다. 애초 새로운 문화는 문화들 간의 경계선에서 생겨난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고유한 문화라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현대에 살아가는 현재의 서구화된 문화와의 혼종화에서 문화의 생성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바바는 문화차이를 중시하는데, 차이는 모든 문화의 고유한 일부라는 사실과 어떤 문화도 동질적이지 않고 이질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호미 바바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화와 식민화와 불가피하게 연결되는 근대화를 다시 점검해볼 것을 요구한다. 자본주의화, 식민화, 근대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식민지배는 유럽과 미국의 권력, 그리고 근대 진보의 거대 서사를 형성해낸 힘이다. 한국성 담론과 정체성의 모색이, 자본의 논리와 물질문명이 빚어내는 현대의 부작용을 극복할 대안이 되지 못한다면,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나 상품으로의 전락을 피할 도리가 없다. 더구나 다문화주의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화와 나란히 진행되는 기획이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화를 단지 획일화하는 힘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사태를 단순하게 보는 것이다. 일제 식민지 경험을 겪은 우리는 이를 섬세하게 바라봐야 한다. 조선예술이 체계적으로 조사되고 기록된 것은 일제에 의해서였으며, 조선예술의 위대한 아름다움을 설파한 사람은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였다. 그가 한국의 미를 존중하고 찬양했던 이면에는 조선의 역사가 핏박의 역사로 점철된 슬픔의 민족이며 그 애상이 선의 예술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본, 동정을 가장한 다분히 편파적이

며 의문스러운 시선이 깔려 있었다. 최근 들어, 야나기 무네요시의 사상이 일본 제국주의와 공모 관계에 있었고, 비극적인 식민의 현실을 예술로 가리거나, 일제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본적 오리엔탈리즘이라는 혹독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식민화의 역사적 경험이 있는 우리는 바야흐로 세계화 시대를 맞아 경제발전에 따른 이민의 유입과 한류의 수출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겪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질적 문화들이 함께 공존을 모색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 이를 새로운 문화의 생성으로 전환해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문화가 단순한 상품으로 전락하는 길을 막아야 한다. 게다가 우리의 오리엔탈리즘조차 조심히 살펴야 할 때가 왔다.